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 기초연금 실무 매뉴얼을 펴낸다. 여기에 '기초연금 지급 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이라는 코너가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만든 표다.

이 표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수급 가능성이 최대 소득은 월 706만9000원이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지만 연 8500만원 소득 가구에 기초연금을 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홑벌이 부부는 월 597만원, 1인 가구는 414만원을 벌어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액이다. 그래서 부부가 월 700만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기초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용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 구간에 들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노후 준비한 세대 밀려들며 기준 높아져 '과다급' 구간 진입 노인에게 복덩이·생명줄 기초연금 지속 가능하게 손볼 것은 손봐야

이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는 요즘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밀려오니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쫓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설정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

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만 내놓고 다른 방안은 나 몰라라 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흔히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 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액수가 일부만 40만원을 주는 2026년엔 31조5000억원, 전부에게 40만원을 주는 2027년 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다. 나랏돈을 이렇게 쓰니 국가 채무가 한 해 70조~80조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의 특성상 기존에 받던 사람에게 주지 않는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다면 우선 대상자와 예산이 한없이 올라가는 구조라도 막아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내놓은 대안도 많다. 우선 새 로 진입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도 기준을 '중위소득의 〇〇% 이하'로 바꾸는 것이 그중 하나다.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갈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36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노후 소득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65세 이상 분에게 기초연금은 자식 대신 효도하는 복덩이이자 생명줄이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보면서 가야 할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1]

영광 설도항 돛대기새우

우리나라에 새우젓 시장은 강화 외포, 흥성 광천, 논산 강경, 부안 곰소, 영광 영산, 신안 송도 등이 유명하다. 이 중 젓새우 여장과 연결된 시장은 외포, 영산, 송도가 있다. 이 중 영산은 배를 가진 선수가 직접 칠산 바다에서 잡은 생새우를 구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새우젓을 원하면 딱 잡은 새우에 천일염을 더해 주기도 한다.

새우젓은 오젓이나 육젓이 유명하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김장용보다 반찬용으로 이용한다. 대신 초기에 많이 나오는 돛대기새우나 복새우를 준비하는 주부가 많다. 지금 준비하면 김장철 적당하게 숙성이 된다. 여기에 늦가을에 잡힌 생새우를 더해 김장용 양념을 준비하면 일 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 돛대기새우는 오뉴월에 잡히는 것

새우와 달리 수온이 내려가는 10월과 11월에 칠산 바다를 비롯해 서해안에서 많이 잡힌다. 김장철과 잘 맞는 시기이다. 칠산 바다에서 새우를 잡는 그물은 안강망이거나 닳자망이다. 1990년대 까지 영광 낙월도나 신안 입자도에서는 '명당구리배'를 이용해 새우를 잡았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예인선으로 어장에 옮겨야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주민들은 '중선'이라 부르고, 수산업법에 '해선망 어업'으로 분류했다. 해선망은 선원들이 1987년 태풍 셀마로 움직이지 못하는 배에서 목숨을 잃은 후 폐선되었다. 이후 안강망과 개량 안강망으로 바뀌었다.

어느 쪽든 새우잡이는 드는 물과 나 는 물에 맞춰 그물을 털어야 한다. 선원 들은 반잠도 아니고 쪽잠을 자야 한다.



그렇다고 그물에는 원하는 새우만 오트 이 드는 것이 아니다. 돛대기새우, 복새우, 젓새우 등 새우류 외에 방어, 민어, 꽃게 등이 철 따라 들어온다. 수온에 따라 해파리가 가득할 때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산 어구, 불법, 술병은 물론 우리나라 육지에서 버린 온갖 쓰레기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물을 털고 난 후에 일이 더 많다. 돈이 되는 큰 물고기를 가려내고, 새우는 조리질로 추려낸다. 오 뉴월에는 오젓과 육젓에 맞춰 다른 새우를 팔리지만, 지금은 오히려 돛대기새우가 많이 잡혀 김장용으로 다른 새우와 섞어서 판매하고 새우젓을 만든다. 그래서 값도 저렴해 김장용 새우젓을 구하기 좋은 시기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이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 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한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1~8월 328명으로 10년 사이 약 5.5배로 늘었다. 도박 혐의로 올해 검거된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벌써 45명이다. 도박으로 형사 입건이 되려면 판정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누범(累犯)이거나,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적발돼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이 정도라면 실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에는 게임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 회원 1500여 명을 모은 판돈 2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가

중학생, 서브 관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이 도박장에 돈을 보낸 회원의 80%도 청소년이었고, 상습 이용자 96명 중에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2년 청소년 1만 844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도박성 돈내기 게임을 해봤다고 답했다. 재학 중 청소년의 4.8%는 도박 조절에 실패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인구 462만명 중 4.8%만 돼도 22만명이 넘는다는.

온라인 공간 도처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런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날려 있다. 클릭 한두번만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급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늦기 전에 전면적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명씨는 "내일 준석이(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는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씨가 전화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 협박하고,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해 알려 드린다"고 했다. 위협성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30일 입당하기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주장했다. 명씨도 문자에 언급된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가 맞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장시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하다.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면 명씨가 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다.

명씨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별개로 202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수천만원을 대가성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인 명씨가 지난 대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여론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명씨는 "내가 입을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 부인과의 사적 문자까지 공개했다. 명씨가 협박성 폭로를 하면 대통령실이 뒤늦게 해명하는 모습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형사 피의자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지도부를 공개 협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연예인들 분쟁에까지 이용된 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분 중인 하이브 산하 연예기획사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와 어도어 대표를 국정감사에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가 연예인 분쟁을 국정감사 대상에 올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걸그룹 멤버가 국감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멤버는 지난달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뉴진스 팬들은 여야 의원실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일·팩스 등을 통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집단 민원을 했다. 한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두 사람을 참고인·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는 주요 국정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따지고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국정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연예기획사 내부 분쟁이다.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이지만 연예인 매니

저가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하라고 한 것까지 국회에서 따질 문제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상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개인사업자 성격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고용부와 어도어 측을 몰아붙이면서 뉴진스 팬클럽 상징 캐릭터를 의석 앞에 내걸고 개인 유튜브에 생중계까지 했다. 새로 밝혀낸 것도 없었다.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에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가 이런 사적 이해 다툼에 이용돼선 안 된다.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국감 대상이 아니다. 민간 단체 중 국감을 받는 곳은 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다. 국회는 그동안 기업인 등을 마구잡이로 국감 증인으로 불러 군기를 잡곤 했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 경제 현안이나 비리 의혹 등을 따진다는 명분은 있었다. 아무리 대중의 관심이 크다고 해도 연예기획사 내부 다툼에까지 국회가 나서야 하나. 갈수록 한심해지는 국정감사가 또 다른 희극적 장면을 만들었다.

이진숙의 <반격>과 김의환의 <의연함>

《강남 오빠》론 어렵었다... 이거다, 이런 《자유의 투사》 더 나와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이진숙의 <신의 한 수> 나라 마비 막았다
김의환의 <소신> 여야 의원 콧대 높였다
자유 우파 정부, 세 번씩이나 물 먹일 순 없다



▲ 이진숙(왼쪽)과 김의환. 두 사람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 뉴데일리

《범죄의+중간 좌파+중간 우파》가 온통 반대하고 방해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에도, 온(민주) 지도자들과 대다수 교수들이 안 된다고 코웃음 쳤다. 길바닥에 드러누워 반대했다.

모든 문제는 <중간파>에서 비롯

오늘의 시점에서 <범죄의+중간 좌파+중간 우파>가 온통 《윤석열 탄핵》쪽에 가 붙었다. 국민의힘 당권파마저 <김건희 기소>도 돌아섰다. 자유 우파 정부를 <세 번씩이나> 물 먹일 순 없다고 하는 쪽은, 이번에도 아주 외롭게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대한민국에는 <다부동 전투>에서 적의 총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백선엽 ☆하도영웅 ☆무명용사들이 예성처럼, 불꽃처럼 떠오르곤 했다. 오늘의 대결 현장에서!

나라 전체 멈춰 설 판이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일당과 좌익 음모자들은 10월 17일을 기해 《헌법 재판소 마비》로 시작되는 《국가 총(總) 마비》를 획책했다.

현재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6명이 남는다. 국회 몫 3명을 더 충원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장난친다. 6명으로 판결할 수 없다. 《이진숙 탄핵》,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도, 심리할 수 없다. 그냥 정체(停滯)다. 나라 전체가 《멈춰 설 판》이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신의 한 수>를 떠올렸다. 현재에 위헌소송을 냈다.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만 심리할 수 있다는 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눈이 번쩍 뜨였는지, 재빨리 《인용》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중찬은 울지 않고 버텼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

지난 8월 뉴욕한인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이중찬 광복회장의 연설》을 읽었다. 이중찬 회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임을 격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걸 듣고 있던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참다못해 일어섰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나?" 이게 소문이 났다.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와 당당했다. "공무원이 그런 정치 편향적 말을 해도 좋은가?"

이 추궁에 김의환 총영사는 당당히 응수했다. "내가 말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정치편향이라는 건가?"

김의환 총영사는 <다부동 전투> 현장의 고독한, 그러나 일당백의 용장 그 자체라 할 만하다. 그는 기계적 공무원이 기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산대도 자유인으로서 멋있이 살기로 선택한 것 아닐까?

이렇게 싸우면, 된다

자유 보수 우파,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밀리기만 했다. ☆투지(圖志) ☆대의(大義)에 살기 ☆투철한 철학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진숙의 <반격>에서, 김의환의 <의연함>에서, 우리는 그 반대의 자유인 상(像)을 본다.

이거다. 싸워서 얻으려는 자만이 이길 자격이 있다. 《강남 오빠》론 어렵었다. 시대는 《자유의 투사》를 대망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0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